



2026. 7. 1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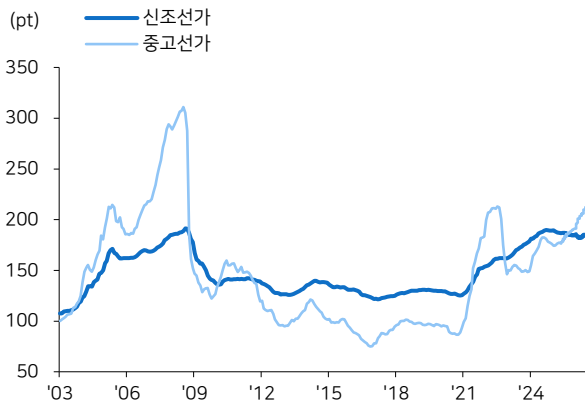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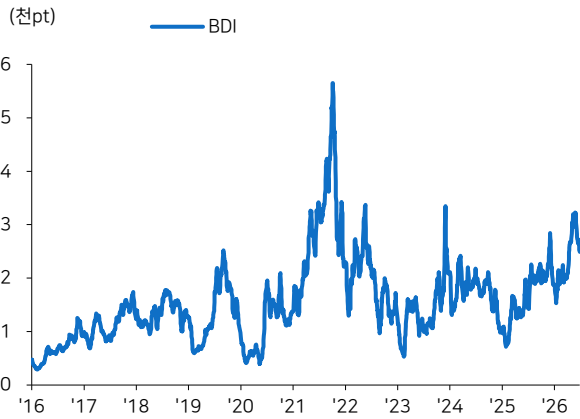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2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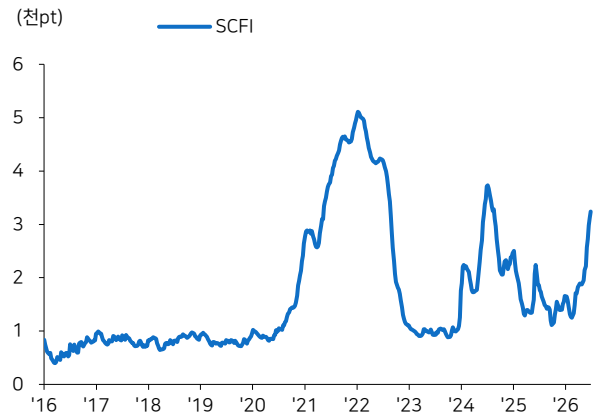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3.0달러 (-7.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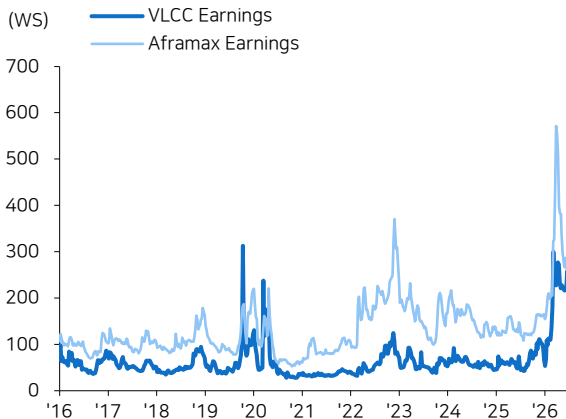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490.0p (-3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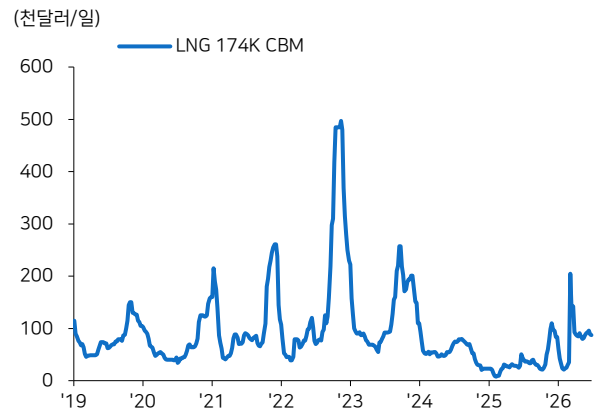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239.6(+118.0 WoW)



**VLCC Spot Rate** 208.7WS (-49.2p WoW)



**LNG Spot 운임** 87.5천달러 (-1.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MM tied to \$237m gas carrier order at Hyundai yard (TradeWinds)** <https://zrr.kr/6D3ctj>

HD한국조선해양이 아시아 선사로부터 3,660억 원 규모의 9만 입방미터급 이종연료 LP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으며, 해당 선박은 HD현대 삼호에서 건조해 2029년 하반기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HMM이 발주했다고 알려졌으며, Mercuria Energy Group이 7년간 용선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이로써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131척, 151억 4천만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의 65%를 달성했고,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LNG 연료 공급용 고압 연료 펌프를 국산화하여 70여 척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Mozambique LNG newbuilding delivery dates shunted back (TradeWinds)** <https://zrr.kr/f6Gr9h>

TotalEnergies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될 LNG 운반선 17척의 인도 일정이 2029년 및 2030년으로 추가 연기됐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예약된 해당 선박들은 총 43억 달러 규모로, Mitsui OSK Lines, NYK, K Line 등 일본 선사들이 발주처로 참여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여러 차례 인도 시기가 조정됐다고 알려짐. 2020년 가계약 이후 수차례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2029년 인도 물량을 위한 건조 슬롯 확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짐.

**HD 현대중공업, 삼안과 부르키나파소 발전소 수주...아프리카 플랜트 공략 (더구루)** <https://zrr.kr/b9hULZ>

HD현대중공업이 삼안과 협력하여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 지역의 콰사 50MW 확장 디젤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 브랜드인 힘센을 포함한 발전소 핵심 기자재 공급을 전담하고 삼안은 기본 설계를 맡아 현지 전력망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엔진기계부문을 핵심 실적 축으로 삼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은 송전망 확충이 어려운 아프리카 시장에서 독자적인 엔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짐.

**현대힘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대상중공업 지분 100% 최종 낙찰 (데일리경제)** <https://zrr.kr/8Zc5kz>

현대힘스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대상중공업 지분 100% 공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보도됨.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선박 블록 전문 제조기업인 대상중공업 인수를 통해 현대힘스는 대불2공장과의 인접성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 및 생산능력을 즉각적으로 확충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현대힘스는 낙찰 확정 이후 자산 실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 제반 절차를 면밀히 이행하여 안정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북미 청정 전력망' 빚장 열렸다... 캐나다 첫 해상풍력 입찰에 한화오션 합류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R0mlmO>

한화오션이 Q ENERGY France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캐나다 역사상 최초인 노바스코샤 해상풍력 발전 단지 개발권 입찰의 사전 자격을 획득했다고 전해짐. 이번 사업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노바스코샤 주정부가 추진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한화오션은 DEME, Jan De Nul, Ming Yang Smart Energy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본입찰에서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번 1차 입찰을 통해 약 2.5GW 규모의 개발권을 배정하고 하반기 중 본입찰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Shell forecasts global LNG demand to reach 700 million tonnes by 2050 (Upstream)** <https://zrr.kr/2FNLKZ>

Shell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가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할 전망이며, 2050년까지 전 세계 LNG 수요가 현재 대비 65% 증가해 연간 7억 톤에 달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연간 1억 8,000만 톤의 신규 공급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예상되나, 실제 수요 증가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수입국의 재가스화 설비 및 파이프라인 인프라 확충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해짐.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분쟁으로 글로벌 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으나 북미의 신규 설비 가동과 기존 공장의 효율 개선이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으며, 2040년대까지 수요 충족을 위해 신규 액화 플랜트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